

123회 정기대공연 연출 인수인계서

연출 이창기

1. 준비단계

- 연출 지원동기

코로나가 주춤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1년만에 다시 정기대공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미 후배들이 워크샵을 잘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에 큰 위기 없이 정기대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았지만, 공연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전에 제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감정, 분위기 모두를 전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회 선후배님들, 동기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에 123회 정기대공연 연출을 결심했습니다.

- 대본 선정

<점과 점...(후략)>이라는 작품은 몇 년 전에 극회 친구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준비하다가 엮어진 공연의 대본이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지만, 작품 자체의 감성과 메시지가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출로서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 이번 공연의 대본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후에는 개인적으로 대본분석을 계속 진행했고, 한예종 공연영상도 참고하여 연출적인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공연진 그 누구보다 대본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전에 한 대본분석 덕분에 캐스트들과 대본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사전 준비

대본 선정까지 마친 뒤에는 기획팀장과 조연출을 확정했습니다. 공연을 같이 이끌어갈 주역들이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회장에게 먼저 제안했고, 두 친구 모두 흔쾌히 수락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준비에 돌입하기 전, 기획팀장 채연이와 조연출 은세에게 이번 공연의 목표를 전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분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공연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연출 은세와는 전체적인 트레이닝 계획과 키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나누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조연출의 역할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다면 연출진 역할분배가 더 잘 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 혼자 모든 것들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다보니 두 명의 조연출을 둔 것에 비해 연출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태프총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준비 후반부에는 조연출들이 스태프업무를 부분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스태프업무가 나름 차

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캐스트 선정

가장 어려웠던 캐스트 선정입니다. 등장인물이 6명, 성비가 여4남2 혹은 여3남3이었는데 여자 캐스트 지원자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지원자들의 여름방학 스케줄을 확인하고, 연습에 지장이 갈 정도의 스케줄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캐스트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여름방학 평일 스케줄을 모두 비운 친구들은 캐스트로 확정된 채로, 애매한 스케줄을 가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한 후에 캐스트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캐스트들과의 조화, 작품 내에서의 역할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개인면담 때 스케줄 조정을 한 친구가 생겨 다행히 큰 고민없이 캐스트 선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면담의 의미는 사라졌지만, 개인면담 때 각오나 태도, 그리고 캐스트 각각의 인물을 미리 탐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캐스트 연습

- 연습 스케줄

캐스트 연습은 월수금 명륜, 화목 울전의 스케줄로 진행했습니다. 울전 학생회관에 연습실 생겨서 울전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울전 연습실은 바닥이 딱딱하고 지저분해서 바닥활용이 어려웠고, 이후에 장면연습을 할 때에 소품을 챙겨다녀야 한다는 점과 매일 동일한 연습환경에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방법 자체는 쉽지만 공용공간이라 예약을 제때 하지 않거나 행정실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울전연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연습실을 아예 잡지 못해서 울전연습이 취소되거나 모든 시간을 잡지 못해서 좁은 울전 동방에서 연습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연습 초반 2주

대본이 어려워 대본분석에 빠르게 돌입하기 위해 기초 트레이닝을 2주로 설정했습니다. 연기 트레이닝의 목표는 1. 연습하고 있는 공간(동방), 같이 연습하는 사람(연개)과 친해지기 2. 무대와 친해지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민망함을 없애고 사회성을 내려놓는 것을 최우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주차는 아이스브레이킹 / 신체 발성 건기, 2주차는 몰입 집중 / 주고받기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세부 트레이닝과 계획은 길어지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캐스트 친구들 대부분이 내향적이고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아이스브레이킹을 제대로 하고 가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대폭 축소하고 같이 게임하고 노는 시간들로 2주를 채웠습니다. 물론 기초 트레이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2주간의 아이스브레이킹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연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주가 지난 후에 캐스트들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

태잡기, 몸 열기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몰입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여 장면연습 때 기초 트레이닝을 하는 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를 제외하고 신체는 매일 아침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배우로서 근력,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습 시작 전에 다같이 하는 루틴이 단합과 연습 분위기 형성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 이후 연습

2주간의 기초 트레이닝 이후에는 바로 캐스팅 오디션을 진행했고 3주차부터는 대본분석에 돌입했습니다. 3주차에는 다같이 둘러앉아서 캐릭터에 대해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과 캐릭터를 몸에 체화하는 트레이닝들을 위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본이 처음에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다들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순차적인 흐름도 아니고 갈등 구조도 없다보니 캐릭터 분석에 다들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극이나 캐릭터 트레이닝을 진행하니 캐스트들이 더 혼란스러워 했는데, 확실히 캐릭터를 잡는 과정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본분석에서 캐릭터 체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캐릭터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만 이뤄진 채로 장면연습을 시작했고, 첫 장면연습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다행히 연출진끼리의 진득한 회의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장면연습이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캐스트들도 장면연습을 하면서 캐릭터에 더 다가가고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혼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본의 특성상 연출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캐스트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연출이 먼저 결정하고 캐스트들에게 연기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습 중간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캐스트들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리 효율적인 연습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또한, 연출적인 그림에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다보니 연기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쓰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행히 선배님들이 연기적인 디테일을 많이 잡아주고 가신 덕분에 캐스트들도 큰 혼란 없이 장면연습이 쭉 흘러갔습니다.

철야는 두 번 정도 진행했고 학생회관이 23시에 닫아서 외부 연습실을 대관했습니다. 0시부터 6시까지 여섯 시간을 빌렸고, 각각 이수화 혜화에서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학관에서 외부 연습실로 이동하는 시간도 꽤 들었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철야의 효율과 기대효과 모두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선택한 철야였지만 외부 연습실에서의 철야는 아주 별로였습니다.

- 개강 이후

개강 이후에는 모두 시간표가 제각각어서 공식적으로 15시에 모여 런을 돌리기로 하고, 추가 연습이 필요한 장면들은 따로 15시 이전에 시간을 내서 연습을 했습니다.

3. 스태프

극회에서 스태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코로나 이후 안 그래도 안 되던 스태프 인수인계가 더욱 이뤄지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스태프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능력부족으로 스태프를 방치한 꼴이 되지는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특히 스태프에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 이번 공연에 스태프총괄이 꼭 필요했다고 느낍니다. 차라리 조연출들에게 부족하더라도 이 역할을 확실히 위임하고 진행했다면 스태프진행이 훨씬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여러모로 스태프 분야가 많이 아쉬웠는데, 특히 연출진과의 소통부재, 미흡한 준비과정이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동방에서의 연습과정을 보지 않고 일을 준비했고 그러다보니 연출진과의 소통 없이 일을 진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캐스트와 장면에 대한 이해도 떨어져 준비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출진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았고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무대

무대팀은 초반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장면연습을 자주 보지 않아 동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장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연출진이 무대 디자인을 제시하게 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무대 디자인이 늦게 확정되었고 조명 디자인 역시 늦게 확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들은 공연을 얼마 전에 무대의 출입구와 동선을 확정했고, 자잘한 무대 소품부터 무대에 쓰이는 천 등이 급박하게 준비되어 무대설치 때 여러모로 고민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무대팀은 다른 팀보다도 컨셉과 디자인이 가장 빨리 확정되어야 하는 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캐스트 연습 구도를 생각하기도 좋고 조명팀이 디자인을 짜기도 좋습니다.

- 조명

공연장 조명이 열악하여 조명설치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 당일에 급박하게 복잡한 일들을 끝까지 책임져준 천유진 조명팀장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명팀장과 한 두명의 조명팀원이 공연 당일에 거의 모든 조명설치와 에어리어 수정을 도맡아 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명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명팀은 공연 당일에 오퍼만 하는 팀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공연장의 조명이 열악하여 더 그랬지만, 공연 시기에 언제든 조명설치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습에 자주 나와준 팀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조명팀도 연습을 자주 보러왔으면 좋겠습니다.

- 음향

연습에 자주 방문하여 음향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번 스태프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악 컨펌이나 오퍼연습 같은 것들이 빠르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준이가 직접 제작한 음악들이 장면에 딱 들어맞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할분배를 해서 일을 분담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의소분

이번 공연의 의상과 소품 모두 뒤늦게 구해졌습니다. 소품은 이미 리스트가 있는 상태였고 캐스트들이 추가되는 소품을 바로바로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공연 직전에 전달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소품이 빠르게 전달되어야 캐스트들이 편하게 연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의상은 의소분팀이 직접 옷을 구하고 입혀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많았다면 금방 확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연캐와 회의한 이후로 거의 연습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의상 이야기를 하다보니 의상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연출진과 캐스트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연에 올라간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 기획

기획팀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역할 분담도 잘 되었고 일처리도 깔끔했습니다. 다만, 공연 당일날 타임테이블, 그리고 공연 전후의 진행을 기획이 도맡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출이 공연날 모든 스케줄링과 공연 전후 진행을 신경쓰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했던 것들 잘 인수인계해서 다음 기획팀은 공연 당일 스케줄링과 진행을 전담하고, 공연 전후 진행을 어수선하지 않고 매끄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학번 선배들까지만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활동기수가 아닌 모든 기수들에게 연락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62 63기가 활동기수라면 61기부터 연락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4. 공연장 관련

학교 내부 공연장을 대관해줄 것처럼 거의 한달 반을 희망고문 했습니다. 결국에는 빌려주지 않았고, 뒤늦게 외부대관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은 공연장이 있었지만, 미련하게 학교 공지만 바라보다가 아예 시기를 놓칠 뻔 했습니다. 학교를 절대 믿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학교 공연장에 미련을 갖고 기획팀장님을 괴롭힌 것을 반성합니다. 늦게 대관한 탓에 선배님들 연락도 뒤늦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신 선배님들이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창덕궁 소극장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시다만 조명기기가 정말 열악했습니다. 채널도 몇 개 없는 데다가 조명은 온통 퍼널 뿐이라서 에어리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조명기기를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을 더 많이 준비해 갔더라면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